

2017 노사문화유공 대통령표창장을 들어올리고 있는 김성의 이사장



전북도마음사랑병원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으로 하트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

**전** 전북도마음사랑병원은 정신병원의 편견을 깬 마음사랑병원이다. 이 병원은 조현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와 환자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학박사인 김성의 이사장은 전북도마음사랑병원을 운영하면서 열린 경영을 통한 노사간 신뢰 구축, 상생의 노사협력 프로그램 진행, 직원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2016년에는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2017 노사문화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등 지역사회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정착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전북도마음사랑병원은 1994년에 개원하여 631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신병원 최초로 서비스품질 우수병원 인증을 받았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대통령상,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인증을 비롯해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선정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마음사랑 병원은 김성의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함께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전북도마음사랑병원 김성의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북도마음사랑병원 아경(왼쪽)과 낮병원



# 환자의 사회복귀 먼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 ▲이사장님은 병원을 개원 하면서 오랜 시간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영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은 정신병원의 편견을 깬, 마음사랑병원이다. 조현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환자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언덕 위의 하얀집', 정신병원을 부를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과거의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최대한 멀리 격리시키기 위한 공간이었다. 정신병원의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기 보다는 수용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편견을 무색하게 하는 병원이 있다. 정신병원이지만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환자의 빠른 치료와 인권, 사회복귀를 먼저 생각하며 정성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완주군의 마음사랑병원이다. 마음사랑병원은 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속에 '인간사랑 구현'이라는 미션 하에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이은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병원 입구에 들어서면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병원 입구에 들어서면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은 직원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전파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따뜻한 치료적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마음사랑병원은 환자의 아픈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 병원은 자연친화적 치료환경을 추구 하면서 도심과도 가까워 보입니다.

전주역에서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위치한 마음사랑병원은 기존의 정신병원에 대한 이미지와는 180도 달랐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테라스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환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마음사랑병원은 자연 속에 위치해 있지만, 전주 시내에서도 멀지 않아 쉽게 방문이 가능하다. 또한 전주 시내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다.

## ▲주로 어떠한 정신건강 치료를 하나?

정신 건강의 '노란 신호등', 조기정신증의 발견과 치료에 집중한다. 조기정신증은 조현병이 발현되는 시기의 초기단계로 흔히 정신건강의 '노란 신호등'이라고 한다. 이 시기의 치료와 적절한 개입이 병의 예후를 결정짓는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마음사랑병원은 조현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우수한 전문치료진이 365일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다. 환자 개인별로 맞춤형 전문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병행해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행동으로 사랑 전하기 위해 병원에서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 사용. 조기정신증 발견·치료에 집중. 개인별 맞춤형 약물치료 등 병행. 낮병원, 입원 잠점 살린 부분형태 운영. 앞으로도 환자 정신재활에 더욱 매진.

또한 조기치료 전문병동(심신치료센터)을 운영하여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돕고 있다. 가족 중에 치매가 발병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마음사랑병원은 점차 기억을 비롯한 여러 기능을 잃어가는 분을 곁에서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하며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치매전문병동(원클리닉)을 운영해 전문가의 집중치료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정신행동증상을 안전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조절해 환자를 모시고 있다. 그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인지증진프로그램, 예술요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우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돕고 있다.

## ▲그렇다면 정신건강을 오래 앓은 환자들 치유 방법도 있습니까?

중독치료의 핵심은 알코올에 대한 교육과 치료시스템이다. 중독 환자의 대다수는 오랜 기간 알코올을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의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에서는 중독치료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 시스템을 중심으로 알코올상담사와의 1:1 집중면담, 중독재활전문가의 전인화교육, 알코올 회복자와 함께하는 T.A.모임/A.A.모임, 12단계 프로그램 등 환우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단주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독환자들의 음주와 관련된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바로잡아 스스로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고 건강을 회복하는 12주 과정의 알코올치료 교육 '전인화교육'은 최근 13기 수료식을 진행하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5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이같은 높은 단주성공률은 본원 중독치료센터의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 ▲이 밖에도 다른시스템들도 있습니까?

단기입원병동, 정신사회재활치료 병동, 폐적한 여성병동, 급·만성기 통합치료 병동 등을 환자의 증상 및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낮병원은 입원과 외래치료의 장점을 살린 부분입원형태로 운영된다.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 받고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음사랑병원의 낮병원(우리함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치료프로그램, 직업재활, 활동요법, 동료회활동,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입원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낮병원 회원들은 전주시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 ▲이사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사랑병원은 단순히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고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신재활에 더욱 매진해 나갈 생각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앞으로 더 발전된 치료체계 및 케어시스템을 개발해 환자들 가정에서 사랑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채규남 기자